

미국으로 찾아온 열방 ‘선교적교회’ 로 나아가야

2022 MiCA 컨퍼런스
“Missional DNA” 주제로 개최

2022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컨퍼런스가 “Missional DNA”라는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렸다.

컨퍼런스는 올가니 교회 운동가인 닐 콜 목사를 비롯해 테피스트리 LA 찰스 최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평촌세종양교회 황덕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선교적 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나눴다. 또 예수인교회 박정환 목사와 올림픽장로교회 이수호 목사가 중소형 교회의 가치와 창의적 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교적교회’에 대한 젊은 목회자들의 관심을 대변하듯 남가주 지역 40-50대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동방 사역에 대해 모색했다. 또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조화를 이뤄 선교적교회를 위한 연합 사역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MiCA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교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교적 교회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와 모임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 또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를 미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린 2022 MiCA 컨퍼런스 “Missional DNA” ©기독교일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컨퍼런스를 준비한 MiCA 대표디렉터 이상훈 총장(AEU 미성대)은 “선교적 DNA란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선교적 DNA가 회복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된다”며 “교회의 역동성 회복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교회 연합과 갱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도모하는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이상훈 총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무엇보다 미주한인교회가 선교적 DNA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오늘날 이민교회가 처한 상황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실제 목회 상황을 나누고 선교적 교회를 향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패널 토의도 큰 관심을 끌었다.

동부사랑의교회 우영화 목사는 “미주한인 이민교회가 가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민교회는 마치 유대교의 회당과 같이 한 인디야스포라들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선교적 교회란 복음적 교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된다면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목사는 이어 “선교적 교회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각 교회가 개교회 주의를 탈피하고 경쟁 관계가 아닌 연합과 동역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역이 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라며 “교회가 담장을 넘어 커뮤니티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상원, 동성결혼법 성문화 추진... 기독교 지도자들 ‘우려’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연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들은 낙태합법화를 뒤집는 법안의 결정에 따라 결혼준중법이 필요한 단계라고 환영했지만, 이는 기독교 지도자와 종교 자유 지지자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 상원은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한 예비 투표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이를 가결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이 연방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도 다른 주

에서 이뤄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상원 최종 표결 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일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이 차단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CNN은 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된 만큼, 민주당 측이 진보적 의제를 선점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5년 동성결혼을 보장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보수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판결을 냈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이 아직 양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동성결혼이 낙태권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재빠르게 성문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많은 보수 의원들은 여전히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보수적인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303 크리에이티브(303 Cre-

ative)의 기독교 웹사이트 디자이너와 같은 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을 요구하는 콜로라도주 차별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인 콜로라도 웹 디자이너 로리스미스(Lorie Smith)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리버티카운슬은 그녀를 돕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리버티카운슬은 “결혼준중법은 이 사건의 승소를 뒤집을 것이며, 그녀는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축 CCNE 인가 획득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CCNE ACCREDITED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ww.wmu.edu | Tel : (213)388-1000 | E-mail : admissions@wmu.edu

강준민 목사 “리더의 고독...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목회자들, 자신의 설교가 복음적인지 항상 점검해야”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강준민 목사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린 2022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컨퍼런스에서 “리더는 고독을 친구 삼을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8월 “리더의 고독”이란 책을 출간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이날 저서와 동일한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인도하며 목회자가 가져야 할 고독의 영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목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외로움’과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의미하는 ‘고독’에 대한 차이를 소개하며 “리더는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더는 고독을 통해 고요한 마음을



2022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컨퍼런스에서 강의하는 강준민 목사 ©기독교일보

가꾸고, 그 가운데 영감과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된다”며 “리더는 고독을 통해 깊어지고 그 깊어짐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강 목사는 “리더는 고독을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되며, 비난과 비판을 지혜롭게 수

용하고 분노를 다스림으로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며 “조급한 일에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신자들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목회자”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목회자들이 스마트폰과 SNS 사용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다. 고통을 통해 분별력, 적응력, 통찰력, 예견력, 문제해결 능력, 위기관리 능력, 해석 능력, 반응 능력, 창의력 등 목회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준민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설교가 복음적인 것’을 주문했다.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율법적인 설교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어 교인들 스스로 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우려다.

강 목사는 “목회자들은 항상 자신의 설교가 복음적인지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섭기치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욱 기자

[1면 “미국으로 찾아온 열방...” 이어]



2022 MiCA 컨퍼런스 “Missional DNA” 패널 토의. ©기독교일보

ANC 은누리교회 김태형 목사는 “미국 교회는 선교의 개념이 뚜렷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다가가는데 반해, 한인교회는 우리 안에 게토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면서 “열방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바로 LA에 왔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펜스 밖에 있는 커뮤니티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목사는 이어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며 “선교적 교회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며, ‘어떻게 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큰빛교회 노희송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선교’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한다”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자마자 전도한 것처럼 복음의 DNA가 바로 선교적 DNA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CCNE 인가 취득

월드미션대, 2023 봄학기 RN-BSN 신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는 2019년 간호사를 위한 간호학사(RN to BSN) 프로그램을 새롭게 오픈했다. RN-BSN 프로그램은 준학사 (Associate Degree of Arts)를 마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간호학과 (Bachelor of Science of Nursing)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20일 CCNE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로부터 간호학과 인가를 정식으로 받았으며, 내년 봄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영주 교수는 “본 과정은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간호사들에게 간호전문인으로서 발전하고 학문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간호 현장에서 간호 관리자 혹은 간호행정자로서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과정은 National League of Nursing의 academic progression model과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에 근거한 간호학사 교육기준에 의거했다. 총 18개월(3학기)동안 1학기에 3과목(12학점)씩 이수해 총 3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봄학기 개강은 오는 2023년 1월 23일에 이어 가을학기 개강은 8월 23일에 하게 된다. 교육 후 진로는 다양한 건강간호 현장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그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디렉터 이영주 교수

리고 지도자적 인격을 겸비한 간호관리자 혹은 간호 행정가로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PH.D 및 DNP 학위를 소지한 교수진들에 의해 진행된다.

RN(Registered Nurse)을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RN 중에는 커뮤니티칼리에 입학해 준학사(AA)를 취득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들도 많다. 응시자격은 준학사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학사 취득 RN은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한다.

“RN은 간호사로서 리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RN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간호사들을 평가하게 될 때에 학사학위가 없어 승진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RN들이 일반병원에 취업해 경험을 쌓으며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교수는 RN-BSN 프로그램 입학조건은 간호학 준학사, 미국 RN 자격증 소지,

평점 2.0 이상인 자라 언급했다. 또한 WMU가 유학생을 위한 I-20를 발행하는 학교인 만큼 이에 해당되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학비자 발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어가 불편한 자들은 본교가 운영하고 있는 ESL 프로그램을 통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이 교수는 WMU 간호학과는 다분히 간호학 학사취득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닌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간호학과인 만큼 의료선교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BHE에서도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간호학과는 신학적 배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강조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매 학기마다 신학 관련 과목 하나를 수강하게 된다. 학비는 총 18,270달러, 학기별 6,090달러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오는 봄학기부터 시작되는 RN-BSN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타주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입학금(300달러)이 면제된다.

이영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대부속병원에서 3년, 신학대학교에서 22년간 재직했으며, 신한대 재직당시 코이카에서 컨설턴트로 4년간 활동하고 UCLA 교환교수로 1년만 재직했다. RN 라이선스는 87년 취득했다.

문의 213) 388-1000 김동욱 기자

성탄의 기쁨으로 동부지역 교회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 동부한인교회협의회/할렐루야한인교회 송재호 목사 909-485-7753 또는 동부사랑의교회 교역자실

좋은마을교회 · 갈보리새생명교회 한 교회로 연합

좋은마을교회와 갈보리새생명교회는 지난 20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힘찬 출발을 선포했다.

연합한 두 교회는 좋은마을교회를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며, 오전 11시 45분 예배는 기존에 좋은마을교회가 위치했던 요바리다 캠퍼스(16800 Imperial Hwy Yorba Limda CA 92886)에서, 오후 2시 예배는 풀러턴 캠퍼스(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에서 드린다.

좋은마을교회는 신원규 목사가 담임을 맡게 되며, 갈보리새생명교회를 담임하던 민승기 목사는 은퇴와 함께 MKW 선교사로 임명 받았다.

MKW(My Kids World)는 비영리 단체로 고아들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저 개발국가 6개 나라에 267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MKW는 만 3-15세까지 매월 35달러를 후원하며 현지에 담당자들을 파송해 신앙 교육을



좋은마을교회 신원규 목사(왼쪽)와 MKW 선교사로 임명된 민승기 목사 내외 ©기독교일보

을 비롯해 예체능교육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양육하고 있다. 또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원규 목사는 “연합한 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연합하게 됐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8년 목회 사역을 마치고 MKW 선교사로 임명 받은 민승기 목사는 “오늘까지 부종한 종의 목회의 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하지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합예배는 신원규 목사의 사회로 김현용 목사가 기도하고 신원규 목사가 “오늘 하루는 새 날입니다”(이사야43:18-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 엘빙튼 목사, 알렌 목사, 심상은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주영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충현선교교회 창립 37주년 임직예배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올해로 37년을 맞는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목사)가 지난 20일(주일) 오후 3시에 충현선교교회 본당에서 임직예배를 드리고 원로장로, 안수집사, 권사 추대 15명과 시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23명이 각각 임직했다.

이날 임직식은 충현선교교회 2대 담임인 민중기 목사가 마지막으로 집례하는 임직식 이어서 깊은 의미를 더 했다.

민중기 목사는 “교회의 사역중에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훈련된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번에 양육된 직

충현선교교회 창립 37주년 임직예배 드려

분자들은 제3대 국윤권 목사님과 함께 충현선교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이기에 양육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의 인도로 열린 이날 임직예배는 한필립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사무엘하 2장 17-27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가 “다윗의 슬픈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울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울의 단점을 보지 않고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장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며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 펜데믹의 초유의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직분자들을 다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 전했다.

2부행사로 진행된 추대식에서 민중기 목사의 인도로 원로장로, 집사, 권사 추대 및 공포를 통해 추대식을 갖고 이어 민중기 목사가 원로패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시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서약, 안수기도, 약속, 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넘치는 교회 감동한 목사가 권면을 토런스 선함목사교회 원로목사 김현수 목사가 임직자에게 축사를 전하고 민중기 목사가 임직패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임직자를 대표로 인사를 전한 권상엽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임직자들이 되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황혜경 집사가 특송을 부른 후에 김정기 장로가 광고하고 민중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27회 학생연주회, 수준 높은 오페라 향연 펼쳐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들이 지휘자로 나선 이번 연주회는 한층 성숙된 오페라 선율을 선사하며 음악 예술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연주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청중들이 참석해 수준 높은 연주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특히 성악가 박인수 교수가 학생들의 성악 지도로 참여해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이뤄냈다.

이날 연주회는 오페라 세리아(Opera

Seria)의 가장 대표되는 작곡가 베르디(G. Verdi, 1813-1901)와 그의 뒤를 전수했던 마스카니(P. Mascagni, 1863-1945), 그리고 오페라 부파(Opera Buffa)의 대표되는 작곡가 모짜르트(W.A. Mozart, 1756-1791)의 중요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임성진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학생음악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음악 문화 예술을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



한길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연주회 ©기독교일보

다”고 전했다.

윤임상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는 15년 가까이 LA 커뮤니티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오페라

의 매력을 유감없이 선보인 무대였고, 앞으로 수준 높은 음악 예술을 통해 커뮤니티 봉사에 기여하는 월드미션 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2.90%이자가능

NEW 2023 HYUNDAI IONIQ5 SE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60 Months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1인 시위’ 고명진 목사 “차별금지법, 목사 입 막겠다는 것”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직전 총회장)가 17일 아침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서며, 최근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시위에 동참했다.

고 목사는 “지금은 아마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오고 싶은 것”이라며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목사다. 성경에 반하는 가치관을 입법화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 동성혼, 소위 쿼이라고 하는 LGBT, 이것이 서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미풍양속과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고 목사는 “다수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우리나라에 있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장애, 국적, 나이... 이런 것 때문에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이 20개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수에 차별을 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고명진 목사가 17일 아침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방송 설교’가 많아 졌다며 “(설교를) 방송하는 게 문제가 된다. (설교를 듣고)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면 그때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목사들의 입을 잠근다, 교회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이름은 좋는데 알고 보면 아주 나쁘다”며 “사회적 위기를 만들 수 있고,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

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목사는 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남자의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나는 여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해서 여성들만 들어가는 여탕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물으면 거의 반대할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폐해가 크다”고 했다.

고 목사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올바로 세워서 우리 시대에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입법 전문위원들이 정말 신경을 쓰셔서 우리나라의 미래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출생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으로는 미래의 세대가 없다. 정상적인 남녀 결혼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건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법에 찬동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고 알고 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목사님들이 정말 다시 한 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생각을 접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매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 는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등이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목회자들 하루 평균 2시간 22분 설교 준비, 1시간 28분 기도

‘건강하다’ 답변 69%...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명 중 6명 이상 ‘지쳐 있다’ ... 소형교회일수록 더해 자기 계발 활동에 활발히 참여... 신학·인문학·과학 순 소형교회는 ‘헌신자’, 대형교회는 ‘새신자’ 부족 호소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사역 시간은 9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에 따라 설교 준비, 심방, 회의에 할애하는 시간이 차이가 컸다.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가 최근 전국 교회 목회자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 한국교회 목회자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결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국민(남성, 40대 96%, 50대 91%, 60대 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영적으로 지쳐 있는 목회자는 무려 10명 중 6명 이상(63%)에 달하며, 교회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 소형 교회 목회자일수록 지쳐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50명 미만 65%, 500명 이상 59%).

목회자들은 평균 하루 총 9시간 27분을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설교 준비’ 2시간 22분, ‘성경 읽기/연구’ 1시간 28분, ‘심방’에 1시간 18분 정도 할애했

다. 교회 규모별로는 클수록 사역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특히 설교 준비, 심방, 회의는 소형 교회와 대형 교회 간 차이가 컸다.

목회자들은 대체로 자기 계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정기적 공부 모임’(58%)을 제외한 ‘온라인 강의 수강’ 77%, ‘간헐적, 1회적 공부 모임’ 76%, ‘세미나 참석’ 76% 등은 70% 중후반대의 비율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었다.

소형교회일수록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의 학습 활동 비율이 높았다. 학습활동 내용을 보면, ‘신학’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문학’ 55%, ‘과학’ 9% 등의 순이었다.

목회 전반의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대다수’(92%)의 목회자가 적극적인 ‘수강 의향률’을 보였다. 특히 ‘매우 의향이 있다’는 적극적인 교육 욕구를 보인 목회자도 62%나 되었다. ‘매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99명 규모’의 교회 목회자층(70%)에서 특히 높았다.

	기도	설교 준비	성경읽기/연구(설교 준비 외)	심방(방문, 전화 등)	독서	운동 및 건강관리	회의	합계
전체	88	142	88	78	77	60	32	9시간 27분
교회 규모 (장년 출석 교인)	50명 미만	86	135	88	68	79	26	9시간 3분
	50~99명	87	139	92	83	79	35	9시간 41분
	100~499명	92	151	84	86	73	56	9시간 38분
	500명 이상	88	170	91	106	77	62	10시간 39분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정도를 묻은 결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남짓(55%) 됐다.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목회자 그룹은 45%였는데, 이는 일반 국민 노후준비율(40세 이상) 74%에 비해 무려 30%p 가량 크게 낮은 수준이다. 목회자들은 현재 목회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새신자 유입 감소’(52%)와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50%)을 꼽았다. 50명 미만 소형 교회의 경우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 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헌신된 일꾼보다는 ‘새신자 유입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았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EM & 대학부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45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http://www.beautifulchurch.org/>

한장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상임회장 천환 목사 취임

회개와 변화, 신앙관 정립 강조

600만 성도도 국내 최대 교파인 장로교의 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에 신임 대표회장에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총회장), 상임회장에 천환 목사(고신 증경회장)가 취임했다.

한장총은 18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총대들은 신임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 및 선출했다.

신임 정서영 대표회장은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Ph. D)을 졸업하고 총신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재 예장 합동개혁 총회장과 (사)한국신민방송협회 총재를 맡고 있다.

천환 상임회장은 고든코웰신학대를 졸업하고 예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예장 고신 총회장을 지냈다. 크리스천투데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FIM 국제선교회 이사장으로 있다.

◆ 정서영 대표회장 “한장총이 한국교회 제 2부흥 중심에 서야”

정 대표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지난 세월 한국교회는 부흥만을 위해 달려온 결과 외면은 증가했지만 내실은 다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성장하고 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된 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 ©송경호 기자

질이 풍부해지며 사명의식이 결여되고 세속화되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그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시간만 보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로교회가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한장총이 중심에 서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제2의 부흥을 이끌어내야 한다. 먼저



신임 상임회장에 선출된 천환 목사(예장 고신 증경총회장, 오른쪽) ©송경호 기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철저히 장로교 신학에 충실한 신앙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장로교 신학에 관한 충실한 연구와, 이로 인한 확고부동한 신앙의 전진을 위해 한장총 모든 회원교단과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한국 장로교회와 한장총이 되는 데 뿌리내리는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환 상임회장 “급변하는 상황,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천환 상임회장은 “그간 한국교회는 개혁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어두운 면모

가 있다”며 “500년 전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진리에서 떠났던 교회를 개혁시켰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은 무겁지만 하다”고 했다.

그는 “큰 위협으로 다가와 있는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등과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길 뿐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며 “한장총의 장점인 연구 기능과 대안 제시 기능이 발휘되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 회복 △한국장로교의 일치와 연합을 통한 변화 주도 △한국 장로교의 위상 회복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네트워크 구축 △한국 장로교회 건강

한 다음 세대 세우기를 다짐했다.

이후 한장총은 신임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과 직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년간의 대표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한영훈 직전회장은 “(상임회장 임기 1년을 포함해) 2년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장총의 사업과 진행 사안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겠다. 그간 부중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성공회 김규돈 신부 사제직 박탈,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했나

유낙준 대전교구 주교 “분노와 상처 야기, 마땅히 책임져야”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14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추락 염원’ 망언 게시물을 올린 원주 나눔의집 김규돈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김규돈 신부가 소속된 대전교구장 유낙준 주교는 “물의를 일으킨 사제로 인하여 분노하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유낙준 주교는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할 사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하여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전용기 추락을 염원할 수 있겠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했다.

유 주교는 “사제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 국민들과 교구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제는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이날부로 사제직이 박탈됐고, 그가 갖고 있던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도 모두 직권면직 처리됐다.

장로회·감리회 등 보통 교단들은 통상 목회자 면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노회를 열

고, 불복할 경우 교회 재판까지 이어진다. 최근 ‘인천 귀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이 확정되는데 2년 이상이 걸렸다. 성공회의 빠른 조치는 이례적.

이에 대해 성공회 서울교구 관계자는 “성공회는 사제를 서품하는 것도 박탈하는 것도, 교구장의 권한”이라며 “청문 절차가 있으나, 교구장 직권으로 기본적 자질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면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절차나 서류 작업은 추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가 잘못이 없다고 버틴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면직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이 있으면...”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교단 내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사제로서 적도 안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회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김 신부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공회 대전교구 홈페이지는 분노한



신임 상임회장에 선출된 천환 목사(예장 고신 증경총회장, 오른쪽) ©송경호 기자

시민들의 클릭 증가 때문인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규돈 신부와 그가 근무했던 원주 나눔의집 페이스북 계정도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김규돈 신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

열 대통령 순방 모습 사진과 함께 “어휴, 압담하기만 하다”며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적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신부는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과 SNS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규돈 신부는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추가로 글을 올려 “페이스북에 덜 익숙하고 덜 친했다”며 “‘나만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해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 글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저의 사용 미숙”이라며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북미주 개척교회(CRC)
ALL NATIONS CHURCH

추수 감사절

2022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 107:1)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_ 818. 834. 7000 | F_ 818. 899. 8355

美 교회,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률 85%

라이프웨이리서치, 목회자 1천 명 대상 조사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미국 내 대다수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재개했음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지난 9월 6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회 목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 목회자 등과 인터뷰했으며,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지역과 교회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모든 목회자들은 2022년 8월 자신의 교회가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75%가 대면예배를 드린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지난 8월 교회 출석률이 2020년 1월의 85%를 기록했다. 이러한 출석률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면 예배 출석률은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2020년 4월 10%로 떨어진 뒤 9월 87%까지 회복됐지만, 이듬해인 2021년 1월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다시 60%까지 하락한 바 있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는 성명을 통해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미국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2022년 많은 경우 마스크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교인들이 빠른 속도로 다시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실시된 라이프웨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34%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한 달에 최소 4번 교회에 갔다고 답했지만, 2022년 4월의 경우 이러한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맥코넬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에 교인들 중 일부는 교회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지만, 출석 감소의 대부분은 자주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에게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펠로우십 교회

연구원들은 이러한 경향이 지역과 교단 노선을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서부(26%)와 남부(25%)의 목회자들은

북동부(14%)의 목회자들에 비해 더 많은 교인들이 전염병 이전보다 출석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복음주의 목회자(29%)는 주류 교단 목회자(16%)에 비해 2배 가까운 출석률 증가를 보였다.

전체 오순절 목회자의 약 33%, 초교파 목회자의 30%, 침례교 목회자의 28%가 2020년 1월 이후 교회가 성장했다고 답했다. 장로교/개혁교회 목회자의 14%, 루터교 목회자의 13%, 회복운동 목회자의 10%, 감리교 목회자의 8%도 동일한 대답을 했다.

초교파 목회자(14%)는 교회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출석자의 30% 미만이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특정 주말에 100명의 출석 인원을 달성하는 교회는 더 적었다. 2022년 8월 현재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회(68%) 출석 인원은 100명 미만이었으며, 그 중 약 33%가 5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에 해당하는 교회는 100-249명의 교인들이 출석했고, 8%만이 주당 250명 이상을 수용했다.

강혜진 기자

“美 초교파 교회 교인 숫자, 남침례회보다 수백만명 더 많아”

USRC, 최근 보고서 발표

2020년 미국 종교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초교파 교회의 기독교인 숫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해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 교인 숫자보다 수백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USRC가 최근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남침례회와 연합감리교회(UMC) 교인 숫자가 각각 약 2백만명 씩 감소했지만 초교파 기독교 교회 신자 숫자는 거의 9백만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USRC는 보고서에서 남침례회(SBC)가 1천7백64만9천40명의 신도를 등록했으며 모든 교단 중 가장 많은 교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감리교회(UMC)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카운티(2,989개)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BC는 지난 2010년 전체 인구의 6.4%에 해당하는 5만816개 교회, 1천9백89만6천975명의 신자가 등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같은 해, 초교파 기독교 교회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3만5천496개 교회에 1천2백24만1천329명의 신자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거의 5천개에 가까운 교회가 무교파로 확인되면서 이 그룹의 기독교 신자 수는 2천1백9만5천641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종교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증가했으며 현재 일반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USRC 연구에 참여한 하트포트 종교연구소 디렉터 스킷 씨마는 “특정 교단의 감소와 초교파 교회의 증가는 동일한 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라며 교파 브랜드가 약해졌고 여성 성직자나 성적 취향 같은 문제로 분열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교인들은 새로운 무교파 교회를 찾거나 찾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텍사스 주 플레이노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 따르면 무교파 교회는 침례교, 천주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와 같은 인정된 교단 및 주류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를 말한다.

1982년 제랄드 브룩스가 설립한 그레이스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초교파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설립자의 특수한 상황과 사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경우 이러한 교회는 독립에 대한 열망과 기독교의 성경적 기본으로 돌아가려는 필요성에서 생겨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교파 교회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특정 교단 소속이 없기 때문에 배경, 성향, 문화가 예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들은 “2010년과 2020년 USRC에 참가한 212개 종교단체 중 교회 숫자는 2.2%, 신도 수는 6.5% 증가한 반면, 전체 미국 인구는 이 기간 동안 7.4%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팀 켈러 “청년들, 용서하는 방법 모르고 확신조차 없어”

신간 ‘용서’ 발표... “취소 문화로 징벌적 운동 증가”

미국 뉴욕 리더십 교회 창립자인 팀 켈러 목사가 “지난 몇년동안 ‘취소문화’로 알려진 징벌적 운동이 증가하면서 사회에 불안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고 용서해야 한다는 확신조차 없다. 정의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용서는 정의와 모순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다. 그들은 갈등이나 불일치를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는 용서가 언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순간이 있다. 우리는 매우 분열되고 양극화된 문화에 살고 있으며 엄청난 분노가 있고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쫓고 있다. 용서는 허공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팀 켈러 목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 ‘용서: 왜 내가 용서해야 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Forgive: Why Should I and How Can I?)를 발표하고 “용서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사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3백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그는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유일한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뿐”이라며 “그리고 기도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신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팀 켈러 목사는 세속적 회의주의에 대한 응답으로 용서와 정의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다룬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추구하지 않는 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의 동기가 분노일 수 있다. 분노는 사랑보다 더 피곤하다. 분노의 감정은 당신을 소비하고 사랑은 당신을 채운다. 분노는 당신을 비틀 수 있다”라고 했다.

책에서 그는 교회가 학대자들을 어떻게 권력자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 체조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Larry Nassar)를 고발한 크리스틴 변호사 레이첼 덴홀랜드(Rachel Denholander)의 말을 인용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학대 혐의를 잘못 처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하고 잊으라’는 압력을 가해 왔다”고 했다.

켈러 목사는 “용서의 목표는 항상 화해”라면서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하셨는지,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전하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을 때 그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언급했다.

이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는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거나, 빨리 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쉽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기적으로 마음을 점검하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훌륭한 회개자는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에 앞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통곡하며 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놀라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루이지애나주 58개 UMC 교회, 동성애 논란 이유로 탈퇴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합감리교회(UMC) 58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교단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MC 루이지애나 연회는 특별총회를 열어 UMC를 떠나기로 결정한 58개 교회의 투표를 승인했다.

루이지애나 연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책임자인 토드 로스나겔 목사는 CP에 “지난 6월 9개 교회가 탈퇴표결을 통과 후 58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CBS 계열사인 WVUE는 최근 “루이지애나 47개 교회가 UMC를 떠나기로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로스나겔 목사에 따르면, 추가된 11개 교회는 보도가 발표된 직후에 특별총회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로스나겔 목사는 특별총회 이후에도 여전히 루이지애나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 숫자를 379개로 추산했으며, 이 수치에는 다른 사역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로스나겔 목사는 “몇몇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있다”라며 “이들 사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아직 건물도 없다. 루이지애나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 있는 웨슬리 파운데이션(Wesley Foundations)을 포함하면 400개에 가깝다”라고 했다.

UMC에서 탈퇴한 루이지애나 교회 중에는 약 6천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맨더빌 노스쇼어에 소재한 성 티모시 교회가 있다. 교회는 이달 초 탈퇴 투표를 실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UMC는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결합 축복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분열적인 논쟁에 휘말렸다고 CP는 전했다.

비록 진보주의자들은 동성결혼과 동성안수 축복에 대한 교단의 오랜 금지 조치를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UMC 내 지도부가 규칙을 시행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해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교회들이 UMC를 떠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대안 교단인 세

계감리교회(GMC)에 가입했다.

최근 텍사스 대형교회 화이트 채플(White's Chapel)은 압도적인 표차로 UMC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교단에 가입할지 여부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화이트 채플 측은 “오늘날 우리는 UMC를 깨어진 교단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이 우리의 상황이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재편성’을 모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선교와 사역 모두에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감리교 교회와 일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UMC 북조지아 연회는 70개 교회가 탈퇴했다고 밝혔다. 8월 30개 이상의 노스캐롤라이나 교회가 UMC에서 탈퇴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계감리교회의 조직자는 캐롤라이나 저널에 200개 이상의 교회가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생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 (213)386-2233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아침달씀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월-토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i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사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gk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umc.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 법원, 교육 성차별에 'LGBT' 포함시킨 바이든식 해석에 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house.gov

미국 연방법원이 교육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9조(Title IX)'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과의사 2명은 민권법 9조의 성차별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하고, 환자보험 및 부담적 정보법(PACA) 1557조의 시행을 통한 미국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통보서가 거세, 이중 유방절제술 등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체 절단 수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연방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매튜 카스마릭 판사는 지난 11일 발표한 판결에서 "민권법 9조는 '성에 기초하여'를 언급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용어에 있어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에 대한 재해석은 이를 장려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된 여성을 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 조항은 단언컨대 생물학적 여성이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턴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에 비추어 민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7조(Title VII)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스마릭 판사는 "민권법 7조는 9조가 아니"라며 "법원은 새로운 민권법 7조의 판례를 9조의 맥락에 반사시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미 보건복지부는 민권법 9조의 성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시민권사무소(OCR)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위한 개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중단하는 부담적정보법 1557조의 시행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만장일치로 민권법 9조를 재해석한 규칙 시행을 차단했다.

김유진 기자

또 "통보서를 통한 피고의 민권법 9조

美 조지아주 법원,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 뒤집어



조지아주 브라이언 켈프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조지아주의 한 상급법원 판사가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뒤집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 풀턴(Fulton)카운티 상급법원 로버트 맥버니(Robert McBurney) 판사는 최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주 전역에 즉시 발표했다.

맥버니 판사에 따르면, 임신 6주 이후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은 미국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히기 3년 전인 2019년에 처음 통과됐기 때문에 무효화됐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결정 이후 올해 7월까지 효력이 차단됐고, 의회에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조지아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ACLU)은 지난 7월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낙태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 헌법의 사생활과 자유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ACLU는 이번 판결로,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클리닉에서 임신 6주가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리스 카(Chris Car) 조지아주 법무장관의 카라 리차드슨(Kara Richardson)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법정에서 우리 주의 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브라이언 켈프(Brian Kemp) 주지사의 앤드류 아이젠아워(Andrew Isenhour) 대변인은 "맥버니 판사의 판결은 조지아 입법부와 국민의 의지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주정부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우리는 조지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박동법을 후원한 조지아주 에드 세틀러(Ed Setzler)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대법원이 맥버니 판사의 결정을 기각하고 낙태금지법이 다시 발효되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혜진 기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pixabay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또 다시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18년 연속 채택이다.

EU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VOA에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 국가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클리마 차석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덧붙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차석대사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배 차석대사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유럽, 2021년 반기독교 증오범죄 500건 이상 발생”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유럽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500건 이상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약 1천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OIDAC in Europe)가 최근 202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럽의 기독교인에 대한 편협과 차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1년 증오범죄로 분류된 사건 519건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24건으로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었다. 독일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11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탈리아(92), 폴란드(60), 영국(40), 스페인(30), 오스트리아(15), 벨기에(10), 아일랜드(7), 스위스(7) 순이었다.

독일에서는 OIDAC가 반기독교 증오범죄로 지정한 사건 112건이 독일 정부가 증오범죄 통계에 포함시킨 109건을 넘어섰다. 프랑스 경찰은 2021년 857건의 증오범죄를 지정한다.

기독교인들은 2021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빈번한 유형의 증오범죄를 구성했다. OIDAC는 기독교단체와 교회를 대상으로 ‘그래피티, 재산피해 및 신성모독’ 사건이 3백여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80건의 반기독교 증오범죄는 ‘제단, 종교적 물품, 교회 장비 절도’와 관련 있었다. OIDAC에 따르면 2021년에는 방화 또는 의도된 방화와 관련된 60건의 반기독교 공격, 14건의 신체적 폭행 또는 위협, 4건의 살인이 있었다.

2021년에는 반기독교 혐오범죄가 519건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2020년 측정된 981건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다.

OIDAC의 2021년 연례보고서는 반기독교 증오범죄와는 별개로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소외’를 강조했다.

종교자유연구소(Religious Freedom Institute)의 유럽 선임연구원인 토드 하위징가는 보고서에서 “특히 유럽 기독교인들이 종교자유에 있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위협은 상대주의에서 발생한다. 이제 상대주의는 서구에서 지배적인 세계관이 되었다. 그 도그마는 성소수자(LGBT) 및



파이비 라사넨 의원(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DF

젠더 유동적인 개인이 자신의 견해가 확인되어야 하는 압박 받는 소수자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하위징가는 “상대주의 철학에 따라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에서 성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이러한 압박받는 집단의 인권을 부정하고 동성혼, 젠더 유동성 및 기타 성적 혁신을 긍정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전통적인 신앙은 혐오스러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위징가는 서구 상대주의의 표적의 예로 파이비 라사넨 핀란드 국회의원을 들었다. 보고서는 라사넨과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라사넨은 올해 초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유로 증오표현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사넨 의원은 “검찰의 26페이지에 걸친 항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부인하려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동시에 모두 죄인이다. 나는 소위 ‘고전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도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 교회의 공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라사넨 의원을 넘어 확장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독교가 이끄는 조직은 반대 신념을 표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금지되었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모욕과 폭력적인 발언은 같은 플랫폼에서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모호하게 표현된 증오심 표현법과 공공질서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켜 주로 영국에서 거리 설교자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OC예배 주일 7:30, 수요일 7:30, 목요일 7:30, 금요일 7:30, 토요일 7:30, 일요일 7:30, 화요일 7:30, 수요일 7:30, 목요일 7:30, 금요일 7:30, 토요일 7:30, 일요일 7:30

최희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E.M.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거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김한오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영아인양예배 오전 11:00, 영아인양예배 오전 9:30(금), 영아인양예배 오전 9:30(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일요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토요새벽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연구회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시, 토요일예배: 오전 6:00(화-금),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79

“페르시아 난민과 마지막 예언의 성취(2)”

필자는 지난주 글에서 지금 이 시대 가장 고난 받는 민족 중 페르시아 난민 이야기를 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다. 필자는 아랍지역의 선교지를 갈 때마다 많은 난민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백팩 메고 길을 걸으면서 영혼들을 만나면 말을 걸어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영혼들이 낮은 방문자에게서 다소 경계심이 풀리면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한 난민을 만났는데 시리아 난민이었다. 몸에 병이 있어 보이는 듯한 30대의 여성이 7, 8세 가량의 아이를 옆에 두고 행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길가에 있었다. 필자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제시하였는데 뜻밖에 그녀의 대답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근처에 이란인들의 교회 가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란 교회 성도들을 접하게 되었다. 갑바도기아에 이란 난민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이란 난민들은 본국에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사명을 가진 여러 민족이 일어나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항하는 세계 교회 영적 동맹을 이루어야 할 시대이다. 세계 선교 전략가들은 이미 마지막 시대는 비서구권 기독교 리더십들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들을 한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일어나 짐승의 권세를 대항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데까지 전진할 것이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결국엔 사라진 교회들도 즐비하였다. 유럽의 교회들은 초토화 되어, 회복될 기미가 없다. 이때 아랍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였다. 난민들이 앞장서는 각국의 난민 교회들이 온 터키를 덮었다. 이집트의 콕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지상 대 명령을 붙잡았다. 이전에 어느 시대에도 맞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연합 민족의 대군대가 출전하는 말발굽을 추스르며 마지막 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영적 대동맹을 이루고 있다. 그 앞줄에 이란의 교회들이 보인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의 세계 리더십들이 그 앞줄에 같이 서 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의 깃발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질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숨기고 계신 몇 민족들, 세상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의 민족 중에 일본이 있다. 중국이 있다. 인도가 있다. 베트남이 있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선교사들이 오늘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 동맹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임을 믿는다.

시칠리아 레온테스 왕은 왕비 헤르미오네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레온테스 왕은 현실에 만족했습니다. 현숙한 왕비 헤르미오네는 남편이자 국왕인 레온테스를 존경하며 사랑했습니다. 레온테스도 아내인 왕비 헤르미오네를 몹시 사랑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인 왕자 마틸리우스는 착하고 영리한 데다 얼굴까지 잘생겼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레온테스 왕에게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련한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가 보헤미아 국왕 폴릭세네스였습니다. 왕은 폴릭세네스와 함께 지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물짓습니다. 이를 본 헤르미오네 왕비가 “폴릭세네스 왕을 한번 시칠리아로 초대하지 그러세요”라고 합니다. 왕비의 제안에 따라 폴릭세네스 왕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칠리아에 머물던 폴릭세네스는 자기의 나라 보헤미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레온테스 왕은 친구 폴릭세네스 왕을 시칠리아에 더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설득하는데 친구가 고집을 피우며 꼭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레온테스 왕은 왕비 헤르미오네에게 자기 친구를 설득하라고 부탁합니다. 헤르미오네가 남편을 위해 남편의 친구 폴릭세네스 왕에게 좀 더 머물라고 말하자 그는 더 머물겠다고 합니다. 친구의 진심을 알고 친구 아내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내의 간단한 설득에 다시 마음을 돌린 친구의 모습을 본 레온테스는 아내와 친구 사이를 의심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설득하고 만류할 때는 고집스럽게 가겠다고 하더니 아내 말 한마디에 더 머물겠다고 하는 친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친구를 독살하려 하였습니다. 레온테스는 이 중요한 임무를 자신의 충신 카밀로에게 맡깁니다. 레온테스의 명령을 받은 신하 카밀로는 폴릭세네스를 독살하는 대신 그를 도와 보헤미아로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에 레온테스는 더욱 광분합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마틸리우스의 핏줄을 의심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닐 수 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아내인 헤르미오네 왕비를 감옥에 넣습니다. 헤르미오네 왕비는 감옥에서 딸을 낳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왕비의 시녀였던 파올리나는 왕에게 딸 페르디타를 보여 주지만, 왕은 공주를 갖다버리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을 받는 아폴리아의 남편 안티고누스는 먼 보헤미아 해변으로 가서 아기 공주를 담은 바구니를 두고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안티고누스는 꿈을 만나 죽습니다.

레온테스는 왕비의 부정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는데 왕이 원고, 검사 그리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왕비의 부정을 심판하기 위해 델포이의 신탁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재판에서 신탁을 해체해 본 결과 모든 것이 레온테스의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린 딸을 되찾지 않으면 모든 핏줄이 끊어진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신탁을 부정하는 레온테스는 아들 마틸리우스 왕자의 사망 소식에 실신합니다. 그리고 레온테스는 아내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편 레온테스가 버린 공주는 양치기가 발견해 키웠습니다. 목동치녀로 자란 페르디타는 자신의 신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보헤미아의 왕자 플로리젤과 사랑에 빠집니다. 폴릭세네스는 아들이 목동 처녀와 사랑에 빠진 것에 대노합니다. 페르디타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험한 욕을 합니다. 폴릭세네스의 심복이 된 카밀로가 말려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카밀로는 플로리젤 왕자와 목동 처녀를 데리고 시칠리아로 갑니다. 그곳에는 아들과 아내를 잃고 나서 후회하면서 살고 있던 국왕 레온테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옛 신하 카밀로를 반갑게 맞아 주고 눈물로 참회합니다. 카밀로는 지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이 데려온 플로리젤과 페르디타를 소개합니다.

두 젊은이를 본 레온테스왕은 끊임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플로리젤

은 아버지 즉 폴릭세네스를 빼앗았고 페르디타는 헤르미오네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페르디타가 레온테스의 딸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레온테스는 사신을 보헤미아에 보내 폴릭세네스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폴릭세네스 역시 후회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시칠리아에 왔습니다. 레온테스와 폴릭세네스는 딸과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모든 것이 풀리고 원상 복귀하는데 레온테스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쉬워합니다. 그러자 아폴리아가 레온테스에게 왕비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며 자기 집에 와서 구경하라고 합니다. 왕비의 조각상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레온테스는 왕비와 너무나도 닮은 조각상을 봅니다. 그 조각상을 보며 슬퍼하려는 찰나 그 조각상에서 헤르미오네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 격동의 세월에서 시녀 아폴리아가 왕비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레온테스가 아내와 딸 그리고 친구를 찾는 해피엔딩으로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겨울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초반에 아내와 친구를 의심하는 레온테스의 불행이 갈등을 낳지만, 후반에는 셰익스피어식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이 작품은 오해의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소개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면 멀쩡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이 죽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둘째는 레온테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좋은 사람(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딸을 살리고, 아내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주변에 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비극은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이웃들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복에는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온테스의 회복은 행복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 왔지만, 아들은 되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란의 세월이 남긴 후유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겨울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 무거운 희극입니다. 희극이지만 숨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신입생 모집</p> <p>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p>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p> <p>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562-903-4705</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ACSI, SACS-CAS, SEAC,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71628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p> <p>총장: 이상훈 박사</p> <p>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p> <p>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p> <p>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p> <p>www.gbtsi.org</p> <p>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p> <p>“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S 신교학 석사 Th.M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p>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p> <p>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p>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달란트 결산의 교훈

마태복음 25:14-3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재림 하실 때에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과 신앙 생활의 성과에 대한 결산을 보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십니다. 주시고 가진 것이 금(gold)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은(silver)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왜 차별되게 한 사람은 다섯 개, 한 사람은 두개, 한 사람은 한 개를 주고 가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는 하나도 주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은혜 받은 그 시간부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주와 능력을 따라 다섯, 둘,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타국에 간 분이 돌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언짢습니다.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과 회계 결산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신나게 달려와서는 열개를 예수님 앞에 내 놓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떠나실 때에 제게 다섯 개를 맡기셨는데 떠나신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늘려서 보소서 열 달란트를 가져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정말 감동적으로 “참으로 잘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서 크게 충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섯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고 또 네 주인, 예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라”는 엄청난 칭찬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하고 뽕뽕해서 네 개를 예수님 앞에 펼쳐 드리고 “여기 받은 소서. 제게 두 개를 주셨는데 두 개를 더 늘려서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말씀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수고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은 다섯 개를 열 개 만들었거나 둘로 네 개로 만들었거나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돈 주인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파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성과를 위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늘 소망의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대가로 허락 받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은 한 달란트로 이미 받아졌는데 섬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안 받은 걸로 하고 땅 속에 갔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자기가 욕심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위한 계획이 많고 욕심이 컸기 때문에 영적인 성과를 위한 일은 귀찮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고 자기 욕심의 입장을 욕구대로 채워보겠다고 부지런히 일하느라 영적인 일은 그냥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한 달란트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가서 파내서 흙이 묻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소망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로 진심으로 열망하는 신앙인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쥐어박아도 같이 맞서 싸우려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받은 은혜 손실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라고 모략중상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마정 못들은 것으로 하고 항상 영적인 소망과 영광스러운 결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놓으시고 가장 애탁해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령한 성과, 영적인 성과만을 위하여 그저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분골쇄신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 일에 전혀 무관심했고 무성의했고 성과가 없었기 때문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25절에 “...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십니다. 이 사람은 결코 게을리 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자기 욕심과 세상 조건을 위하여, 자기 입장과 명분,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네 죄를 대속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로 팔로 세워놓고 내가 네게 이 달란트를 주고 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해 달라고 달란트를 주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 속에 파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사망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결국 불신자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예수님의 판단은 영적 성과를 위하여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처리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밀전을 손해 보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본전 갖다 돌려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결산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손해를 끼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성령님의 재주와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을 거두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야 마땅한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

열 달란트 만든 사람은 텅으로 한 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세상 분배의 이치는 본전은 본전대로 돌려주고 늘린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세상 이익 분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본전과 그가 애써 노력해서 늘린 이득까지 몽땅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엄청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곳은 흑암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이를 악물고 벌여 자신의 몫이라고 챙겨놓은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주와 능력까지 주시면서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 영적인 소망과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달란트 결산의 교훈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고 구원 얻은 사람은 영적 성과를 위하여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자체가 기술과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30절에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리석은 종과 같이 어두운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맡기신 달란트로 늘린 성과뿐 아니라 본전까지 다 넘겨주시면서 또 게으른 자의본전까지 빼앗아 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을 다하여 달란트 결산의 때에 흐뭇하도록 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글로벌선교교회

GLOBAL MISSION CHURCH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예배시간 안내

KM 주일예배 1부 07:30AM 2부 09:15AM 3부 11:00AM	EM 주일예배 1부 09:00AM 2부 11:00AM	새벽예배 평일(월~금) 05:00AM 토요일(토) 06:00AM
--	--	--



김지성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igmc.org



갈보리새생명교회와 중은마을교회가 아나가 되었습니다!

갈보리새생명교회 담임하던 민승기 목사는 28년 목회사역을 마치고 MKV 선교사로 임명 받았습니다. MKW(My Kids World)는 비영리 단체로 고아들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저 개발국가 6개 나라에 267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 3-15세까지 매월 35달러를 후원하며 현지에 담당자들을 파송해 신앙 교육과 예체능교육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714)615-9191, johnsmin9191@gmail.com



강준민 칼럼

감사는 눈픔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감사는 눈픔입니다. 감사를 위한 눈픔, 감사를 향한 눈픔, 감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픔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미니라”(마 13:13)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픔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의 눈픔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픔이 축복입니다. 죽은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것이며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눈픔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반면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눈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기도의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테오(eucharisteo)”입니다. 이 단어 속에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 속에 “기쁨”을 뜻하는 “카라”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함께 합니다. 토마스 아 켈피스의 말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감사의 눈픔은 깨달음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음은 열림입니다.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눈픔, 곧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시 ‘오로라 리(Aurora Leigh)’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만 자기 신을 벗고
나머지는 덩불에 둘러앉아
검은 딸기를 따다.”

평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는 것을 보았던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감사로 눈을 뜨게 되면 평범한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역설입니다.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지만 또한 감사할 때 눈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경탄입니다. 눈이 열리면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탄할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눈픔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영

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눈픔은 관심 기울이기 훈련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게 될 때 평범함 속에 감춰진 감사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관찰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탁월합니다. 관찰력이 탁월하다고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불평하는 일에 관찰력이 탁월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좋지 않은 것, 모자란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탁월한 관찰력을 개발하는 것과 그 관찰력을 감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눈을 뜨게 되면 고통 속에 담긴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살전 5:18).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고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성품을 빚으시고,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롬 8:28).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증명하는 스토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 풍성한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인해 감사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위한 눈픔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김한요 칼럼

한미 목회자 포럼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번 한국 일정 중에 한미 목회자 포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60대 전 후반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르익은 사역들을 나누며 서로 도전을 주고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나눕니다.

어느 교회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

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머릿속에 찌하게 남는 표어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훨씬 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인사는 고독사가 많은 외로운 현대사회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진심을 전하는 관심 있는 인사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부천에 있는 한 교회는 매주 주보에 새로 등록된 성도들의 명단이 오르는데, 매주 평균 약200명의 성도의 이름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베델교회는 매주 평균 10가정이라고 자랑하러다가, 깨갱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 년에 한번 새 생명 잔치를 하며 전도에 집중하지만, 이 교회는 전도 집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온 성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다고 전

해주시는 목사님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천원 식당을 개업해서 섬깁니다. 요즘 짜장면도 6천원인데, 잘 차린 밥상을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천원, 60-74세까지는 7000원 그리고 60세 미만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아 시내 한복판에 식당을 내고, 교인 중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섬기는데, 식당 이름이 “행복한 식당”입니다. 이 사역을 듣는 모든 목사님이 행복해졌고, 입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내년엔 저는 꼭 가서 7000원 내고 밥 한 그릇 사 먹려고 합니다.

또 한 교회는 출석 교인 수가 등록 교인 수보다 많은 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 전략은 아이들 전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그

래서 방문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나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자 온 부모님들이 결국 당당히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맘에 맞는 사역팀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결코 손님이 아닌 주인같이 교회를 섬기도록 등록 당일부터 봉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들이 많던지 감사만 넘칩니다. 이번 한미목회자 포럼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한 베델교회의 사역은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였습니다. 역시 사람을 탐하는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결국 인재 양성이 미래를 바꾸는 유일한 소망이라며,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는 일을 베델이 했다고 부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진유철 칼럼

잃어버린 후가 아니라 있을 때 감사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는 그가 무엇을 가지 있게 여기는 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는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건강과 물질, 기회 등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거나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

면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00세를 넘기고도 저술과 강연을 펼치는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책 '백세를 살아보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해 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나를 만난 세무사가, 자기 사무실로 오다가 흑 손기정 옹을 보았으냐고 물었다. 못 보았다고 했더니, 조금 전에 그 사무실을 다녀가셨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많이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가셨다는 것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어른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보다도 연세가 높았기 때문이다. 세무사는 그 분을 보내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이 무거운 반성에 잠기게 되었다고 했다. 손옹이 찾아와 '최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상금도 생겼다고..... 그래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을 먼저 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라고 한 것이었다. 세무사가 '선생님은 연세도 높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답이 돌아왔다. 최 세무사가 그러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하고, 계산해 보여드렸다. 그 계산서를 살펴본 손옹은 '고 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 요청해왔다.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

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드렸더니 그제야 만족해하면서 '됐어, 그만쯤은 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라면서 정리하고 돌아갔다는 설명이었다." 손기정 옹은 나라를 잃어본 고난의 경험이 있었기에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카고 올인 순복음교회의 이일 목사님이 설립감사예배 때 눈물로 감사를 전하는데, 나성순복음교회를 떠나보니 그 때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인사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가치, 예배와 교회의 가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는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고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이주 역사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7)



김 종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 중국내 조선족

조선족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민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중국 국적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중국내전의 결과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불려지길 원했던 중국 땅의 한민족을 소수민족의 하나로써 '조선족'이라 명명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 영토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은 국제정세와 중국내 변화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을 얻는다. 그 결과, 현대 조선족들은 대부분 자신을 중국사람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닌 엄연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졌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주'라는 이름은 일

제가 조선족이 거하던 지역을 동만주, 북만부, 남만주로 나누어 통치할 때 사용했던 지역명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날 대흥안령(大興安嶺) 산맥부근 만주리(滿洲里)를 제외하고 모두 이름을 바꾸었다.

1907년 중국정부는 동북지역을 '동북 3성'으로 구획했는데 만주지역을 동북 3성으로 설명한다면, 동만주는 연변지역, 북만주는 흑룡강성지역, 남만주는 요녕성의 요하 동부와 길림성의 중남부 지역이라 말할 수 있다. '간도(間島)'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이주했던 지역으로 오늘날 연변의 '연길', '화룡', '왕청현'이다. 일제는 이 지역을 '동간도' 혹은 '북간도'라 불렀다. 1945년 중국공산당은 '간도'라는 이름을 일제의 유산이라하여 정식으로 '연변'이라 명명한다.

◆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초기 이민자

중국 동북지역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滿洲族)의 발상지였다. 1644년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천도하여 나라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발상지였던 '만주지역'을 신성시해 타민족 거주를 금한다. 1658년에는 백두산 이북 400km, 즉 압록강 하류 단동, 봉성, 관전 지역을 봉금지대로 결정해 조선인의 진입을 막았고, 1667년에는 중국내 '봉금(封禁)정책'을 시행해 한족(漢族)의 접근을 막았다. 그래서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요녕성 압록강변의 일부지역

은 무인(無人)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가 1858년 '아이훈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또한 1860년 '북경조약'으로 연해주 지역을 얻으면서, 청조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내지의 백성을 변방으로 이주시켜 토지를 개간하고 변방을 방어하기 위한 이민실편(移民實邊)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봉금지역의 경계가 점차 완화된 가운데 토지가 적박했던 함경북도, 평안북도 농민들은 봉금령이 완화된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아침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농사를 짓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다가 점차 봄철에 농기구와 소를 끌고 강을 건너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면 타작한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절출가이민(季節出家移民)이 증가했다. 후에는 아예 가족과 함께 강을 건너 집을 짓고 살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 비옥한 농토의 수확량은 함경도 지방보다 3배나 많았다. 그곳은 밭농사, 벼농사를 위해 개간할 수 있는 땅이 많았던 무한한 황무지였다. 울창한 숲에서는 산삼도 캐 수 있었고 수렵과 벌목도 가능했다. 가난한 조선인이 이주하기에 적합한 땅이었다. 1860년대에 간도지역의 한인 인구는 이미 7만 7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0년대 이후, 조선내 있었던 몇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는 조

선농민을 만주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부추겼다. 17세기, 18세기 자주 불어닥친 자연재해는 촌락사회를 붕괴시켰고, 특히 1869년과 1870년 한반도 북부지역에 불어닥친 흉년과 전염병은 조선농민으로 재난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했다. 잡다한 토지세, 군역(軍役)에 대한 부담한 징수, 정부의 곡식 대여와 환수에 따른 부패 역시 조선농민으로 고향을 떠나게 했다.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이런 상황에 협조했다. 청나라는 240여년 유지해왔던 '봉금지책'을 두차례에 걸쳐 폐지한다.

1875년에 길림성 동남부 지역 봉금을 해제하고, 1882년에는 두만강 이북 지역의 봉금을 해제한다. 이는 조선인에 대한 봉금해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인이 만주지역 일대에 거주하며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에 대해 청조가 묵인해 줄수 있는 명분이 선 것이다. 조선왕조 역시 1885년 조선인의 만주이민 금지령을 철폐한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초기 조선인 이민자들이 통화(通化), 집안(輯安), 장백(長白), 신빈(新賓), 용정(龍井) 등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 정착하고 점차 연변과 기타지역으로 확산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한인 사회를 형성하게 했다. 1869년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중국 경내에 거주한 조선인은 10만여명에 달하였고 이들이 개간한 땅은 3만 5천ha나 되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위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o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o@inexo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 들이기

일상 정리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더 사랑하는 법



고(4년), 작가나 강연자의 업무도 종종 하지
만, 직업은 변호사다. 그가 '크리스챤너티투
데이 2020년 올해의 책' <크리스천 일상 정
리법>을 쓴 것은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
했기 때문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열리는 친구들 앞에서 생
활 리듬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고백하면서,
책의 기본 뼈대가 된 바깥에 할 습관 목록을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그 목록대로 실천했
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목록이 친구들과 그 친구들에게 전달되며 많
은 영향을 끼쳤고, 급기야 《The Common
Rule》이란 제목으로 출판돼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게 됐다.

저자 열리가 제시하는 습관 목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일 습관, 매주 습관. 매
일 습관은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다른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 "휴대전화 환
시간 끄기", "휴대전화 전 성경 읽기"이고, 매
주 습관은 "친구와 한 시간 대화하기", "미디
어 네 시간 선별하기", "24시간 금식하기",
"안식 누리기", 이렇게 각각 네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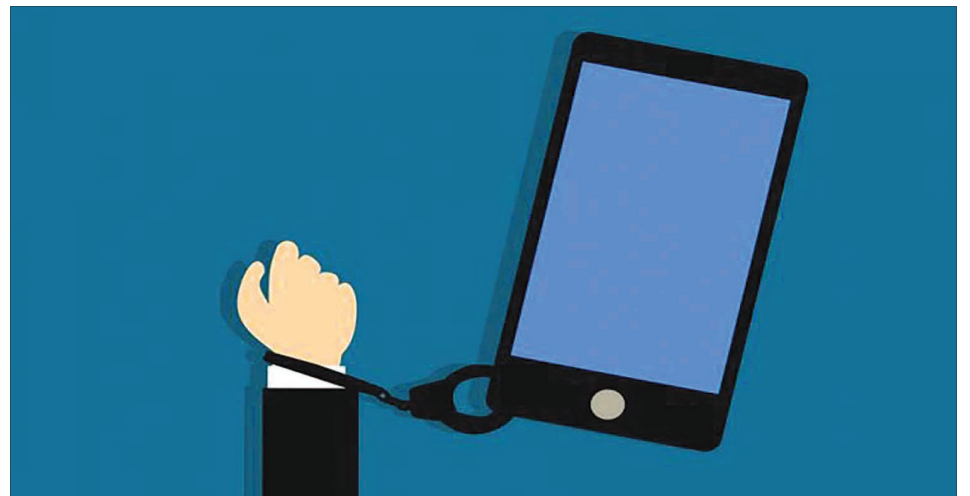
각 습관들은 새로운 삶을 수용하거나 잘못
된 삶에 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 하나님
을 사랑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관
련돼 있다. 사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요구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또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면 정말 저자가 말한 삶의 변화
가 일어날 것이다.

습관의 힘은 기독교 밖에서도 인정된다. '습관'을 다루는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실 모든 자기계발서가 어떤 삶의 원칙이나 방법을 '습관화'하도록 요구한다. 일찍 일어나기, 금식, 목상 시간 갖기, 타인과 대화 나누기 등은 충분히 그런 책들에서도 발견할 만한 습관 목록이다.

그러면 열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의 특징점은 무엇인가? 먼저 습관을 통해 빚으려는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 저자 열리는 새로운 습관을 적용하여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생각을 형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이메일, 피드, 기사, 미디어가 아니라 성경이 차지하길 원한다. 우리 생각이 수만 가지 아이디어로 뒤섞인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 온전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길 원한다. 이처럼 저자가 권장하는 모든 삶의 습관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 그리고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쾌락, 돈을 사랑하는 세대와 함께 살아가면서 동화된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일에 교회 갈 때만 빼고는 자기 인생에 빠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 빠져 가까운 사람과 보낼 시간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진지하



©픽사베이

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

빠르고 편리한 문명의 기술이 우리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도, 현실은 정 반대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딱히 문제 될 것 있는가? 빠르고 복잡한 현대인의 삶이 이런데, 벗어날 길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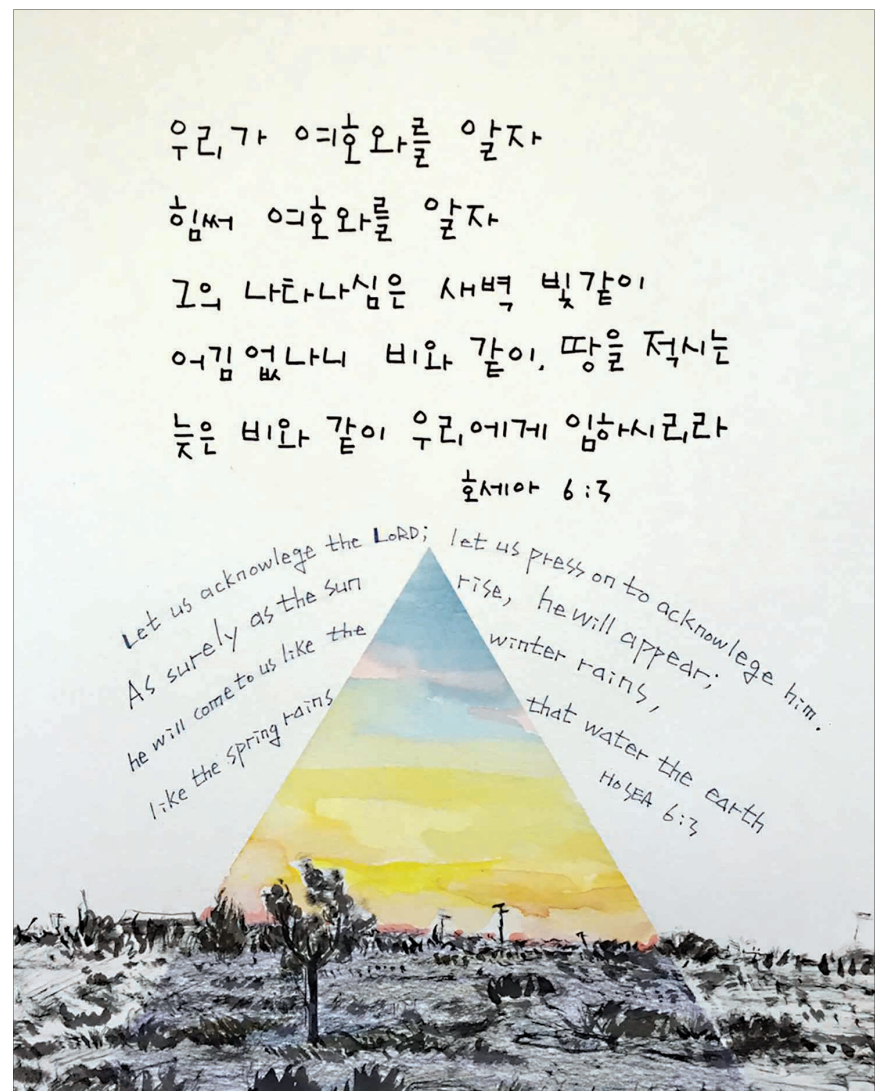
저자 저스틴 열리는 지금 삶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부록에 나와 있는 회의론자, 부모, 직장인, 예술가와 창작자, 기업가, 중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을 제시한 저자는 우리가 실제

로 어떻게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제시한 여덟 가지 습관을 한 주, 한 달, 공동체와 함께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자. 그러면 저자가 친구들과 함께 누렸던 삶의 변화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려면 뭔가는 바뀌어야 한다. 저스틴 휘트먼 열리가 쓴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
저스틴 휘트먼 열리 | 우성훈 역
생명의말씀사 | 288쪽

믿음과 삶을 일치시킬 매일 매주의 실천

어떻게 하면 산만한 우리의 생활에 기록과 사랑이 깃들 수 있을까?

습관의 힘은 막강하다.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의 저자 저스틴 휘트먼 열리는 "우리 모두 습관의 구체적인 통제에 따라 살아가며, 그 습관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찰스 두히그가 <습관의 힘>에서 한 말을 인용하며 "습관이 형성될 때 두뇌는 의사 결정에 관여하기를 완전히 멈춘다"고 말했다. 듀크 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우리가 매일 취하는 행동의 40%는 선택이 아닌 습관의 결과물"이라 하기도 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만큼이나 우리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쉽게 말해 매일 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이것저것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삶을 어떤 형태로든 빛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기 전까지.

저스틴 휘트먼 열리는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다. 짧게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적이 있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 (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판 만더 이후 네덜란드 풍경화

17세기 풍경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 상기시킨다

무치아노 촉발시키고 판 만더 소개한 바니타스 풍경 여러 화가 확산돼 네덜란드 풍경화 주요 부분 정착해 폭포, 역경과 시험 암시하고 덧없음과 사라짐 보여줘 본 것들 재현할 뿐 아니라, 실제의 본질적 구조 표현

판 만더의 <인간 삶의 알레고리>를 신호탄으로 풍경 속에 삶의 진실을 환기시키는 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의 작품에는 유리잔, 해골, 꽃병과 같은 바니타스(Vanitas)적인 이미지와 함께 폭포나 연기, 순례자와 같은 이미지들도 포착된다. 특히 화면 오른쪽 산 바로 아래에는 폭포가 눈에 띈다.

여기서 폭포는 단순히 자연의 이미지를 기록한 것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기용된 것인데, 이 이미지는 특히 후대의 미술가들에게 전승되었다.

이런 요소들은 판 만더에 의해 선보였으나, 그 도상적 원형은 이탈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롤라모 무치아노(Girolamo Mutiano, 후일 코르넬리스 코르트(Cornelis Cort)가 재제작)의 <풍경 속의 오누프리스(Onuphrius in Landscape, 1574)>는 '사막의 수행자'로 불리는 오누프리스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주인공은 깊은 산림 속에서 기도와 명상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림의 배경으로 사막 대신 숲을 선택했지만, 이 그림에는 몇 가지 상징적 장치가 숨겨져 있다. 폭포와 바위, 그리고 흩어진 그루터기와 같은 이미지들은 존재의 일시성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이 무섭고 위험한 환경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보호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도상은 네덜란드의 얀 브뤼헬(Jan Brughel)과 파울 부릴(Paul Briil) 같은 풍경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월포드(John Walford)는 그들이 네덜란드 북부에서 개신교의 예술적 감수성에 맞게 수도자 이미지를 피하고 창의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지형에는 없는 웅장한 산의 이미지도 기용됐는데, 이는 판 만더의 그림에서 보이는 산의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점검된다.

지롤라노 무치아노에 의해 촉발되고 판 만더에 의해 소개된 바니타스 풍경은 이후 여러 화가들에 의해 확산되어 네덜란드 풍경화의 주요 부분으로 정착된다.

그것은 먼저 헨드릭 홀치우스(Hendrick Goltzuis)의 <폭포를 바라보는 연인들(Couple Viewing a Waterf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잘 차려 입은 연인들이 바라보는 폭포는 무치아노의 수도자 풍경과 유사하고, 판 만더의 알레고리 작품과도 흡사하다.

이 그림에서 홀치우스는 수도자 이미지 대신 우아한 옷을 입고 전망을 즐기는 현대적인 연인들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폭포는 앞으로 다가올 '역경'과 '시험'을 암

시하는 동시에, '덧없음'과 '사라짐'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풀이된다.

두 연인은 지금 평화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음의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이와 비슷한 특징은 자크 드 헨(Jacques de Gheyn)의 <농가의 착유(搾乳) 장면(Milking Scene before a Farmhouse, 1603)>에서도 엿볼 수 있다. 홀치우스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종교적 인물을 포기하고 '농경생활의 시늬시스'라고 불리는 장면을 제시한다.

자크 드 헨의 관화는 목가적인 사랑과 같은 낭만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자크 드 헨은 여기서 알레고리적인 함의를 지닌 모티브를 다루고 있다.

그는 죽음 앞에 선 젊은 연인들의 알레고리를 홀치우스의 폭포보다 더 긴장감 있게 다루고 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은 홀치우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가는 거의 허물어지기 전이고, 문짝은 반쯤 뜯겨져 나갔으며, 창문은 깨졌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오며 주위에는 세찬 바람으로 생의 불연속성(inconstancy)을 암시한다.

흥미로운 것은 소 옆에 세워진 부서진 바퀴인데, 이 이미지는 그림의 색다른 요소로 도입되었다. 망가진 바퀴를 화면 전면에 배치한 것은 의도성이 개입된 설정이다. 이것은 지상적인 일들의 썩어짐을 명시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부패의 이미지는 네덜란드 화가들이 애용한 장치였는데, 그것은 정물화에서 죽은 꽃이라든지 타버린 촛대 또는 풍경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고사목, 산 풍경에서 폭포의 이미지와 견줄 수 있다.

자크 드 헨의 관화는 알레고리를 보다 사실적인 현실공간 안에서 전개시켰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살로몬 루이스달의 <모래언덕의 농가(Farm in the Dunes, 1626년 경)>를 보면 드 헨의 작품보다 서사적 이야기들이 축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친절하게 제시돼 있지 않지만, 앞의 그림들보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의 우편에는 한 사람이 강아지와 함께 비스듬히 앉아 있고, 좌편의 지팡이를 든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그 인물은 판 만더의 그림에 나오는 여행자를 연상시킨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부패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농가 근처에는 낡은 수레바퀴가 위치해 있고, 다 허물



농가의 착유 장면(자크 드 헨, 에칭, 1603년).



모래언덕의 농가(살로몬 루이스달, 1626년경).

어져 가는 헛간과 울타리, 굴뚝의 연기 등은 전체적으로 삶의 불안정성을 말해준다. 암묵적으로 역세로 엮은 초가지붕과 먹구름, 세찬 바람 등은 상처 입기 쉬운 삶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림에 어두운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서 먹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빛줄기가 오두막과 울타리, 길가, 전면 우측에 처량하게 앉아 있는 인물을 비추며 콘트라스트를 이룬다.

비슷한 예는 얀 반 호연(Jan van Goyen)의 <시골길(Country Road, 1633)>에서도 찾아진다. 화가는 특정한 장면을 재현할 뿐 아니라 풍경의 중요한 구조를 증시한다.

이런 나무가 등장하는 구도를 반 호연은 즐겨 사용하였는데, 화면에는 잎이 무성한 참나무와 바로 그 옆에는 고사목을 설정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전면에는 이와는 별개의 기물이 위치해 있다.

그것은 살로몬 루이스달이나 자크 드 헨, 그리고 동시대 풍경화가들의 그림에 종종 등장했던 부서진 수레바퀴의 이미지이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그들이 본 것만을 재현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실재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 아는 것을 표현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1620년대와 30년대에 활동했던 살로몬 루이스달이나 피터 몰레인(Pieter Molijn), 피터 판 산트포르트(Pieter

van Santfoort)와 같은 화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풍경화를 제작할 때 자연에 모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풍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하신 공간이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타내신 매개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계시의 세계를 묘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풍경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화면의 구도를 설정할 때 풍경과 함께 인물이 들어선 복합적인 회화를 계획해야 했음을 말해준다.

만일 특정한 '이야기'가 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의 경우 피조된 자연세계, 즉 풍경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됐고, 이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창조주의 성품에 대한 반영으로 비추어졌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Advertisement for 'mystylist' hair salon. Features various hairstyles, pricing for haircuts (\$40-\$15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오다가 주웠어

KIDOK SHOP

단체선물 특가전

쿠폰 70% OFF



www.kidokshop.com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단체선물 기획

1.



퀵센스 6종 프리미엄 칼세트

10세트부터

~~\$369.90~~ \$150

PRICE FOR 10 SETS



단체선물 기획

2.

PLAN 36.5 퍼퓸드 핸드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20세트부터

~~\$300~~ \$130

PRICE FOR 20 SETS



BEST SELLER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등이 퍼지면 인생도 퍼진다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